통계청, 4월 취업자 26만여명 증가기재부 “견조한 고용흐름 이어져” 평가부울경 대구 경부 등 대부분 지방 감소  
  
  
  
  
  
  
  
17일 통게청은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지난달 전국 취업자 숫자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6만명 넘게 늘어났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고용통계에 대해 “견조한 고용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취업자 증가는 수도권 잔치일 뿐이었다.17일 통계청은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산업별로는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상용직이 29만 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4만 7000명 줄었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특히 주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7개월 연속 고용률(72.7%)이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부산의 경우 4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7000명 감소했다. 울산도 1000명이 줄었고 경남도 5000명이 감소했다. 부울경 모두 합하면 1만 3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대구도 취업자가 7000명 줄었고 경북도 2만 1000명 감소했으며 강원도는 불과 2000명 증가에 그쳤다.그러면 취업자는 어디에서 늘어난 것일까.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도는 취업자가 10만 3000명이 증가했고 서울도 10만 5000명이 늘어났다. 인천 역시 3만 5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수도권 지역을 모두 합하면 24만 3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 취업자 증가분(26만 1000명)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과 가까워 ‘준수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충남과 충북은 각각 2만 6000명과 1만 9000명이 증가했다.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를 집중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도 수도권에 입지하면서 수도권은 날로 경제가 좋아지고 지방은 경제가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다”며 “고용통계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